

듣기와 독해 함께 풀기. by 바나나기차

안녕하세요. 바나나기차입니다!

남의 칼럼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랐죠? ㅎㅎ

이번에 유정우T의 부탁으로 여러분에게 영어듣기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려구요.

유T와 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ㅎㅎ

어떤 내용을 다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나 수X회의 게시판을 보다보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 것인가'입니다.

두 입장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	풀어도 된다	풀지 말아야한다
근거	시간 절약	실수

두 입장과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또는 주변 사람들)는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어서 시간이 절약 되었다.' 또는

'그렇게 하다가 틀린 적이 있다.'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주장합니다.

물론, 경험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해 보이는 두 입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부터의 내용은 제 책의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앞의 1~3단원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 미리보기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은 선택지를 미리 한 번 읽어보라는 식의 구체적이지 않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제 책에서는 각 유형별로 미리 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칼럼에 다 담기가 힘들니, 우선은 '선택지를 미리 보는 모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칼럼을 읽으면 됩니다.

● K·W

제 책에서 소개하는 K·W 또한 다른 선생님이 말하는 K·W와는 다릅니다. 보통 '선택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와 구분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K·W만 잘 잡으면 스크립트를 다 듣지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듣기를 할 때 독해를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듣기를 할 때 독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석을 통한 방법으로 독해를 푼다고 해서 듣기를 틀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말투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하는 듯이 쓰여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① 표지를 넘기라는 방송 후 듣기 안내 멘트가 나오는 동안의 시간
- ② 각 문제와 문제 사이의 시간
- ③ 문제의 답을 구한 직후부터 다음 문제 시작까지의 시간
- ④ 1지문 2문항 유형을 두 번째로 들려주는 시간

①의 시간은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40초 정도 돼. 이 시간 동안 1~3번, 13~15번의 선택지를 미리 보면 돼. 다 봐야한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는대로 보면 돼. 처음에는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숙달되면 빠르게 될 거니깐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 13~15번은 이 시간에 다 못 봐도 상관없어~ ②의 시간에 보면 되니깐 말이야.

②의 시간은 문제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13~17초니깐 평균 15초라고 잡으면 17문제의 사이사이마다 총 16번, 즉 4분의 시간이 있는 거야. 4분이라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쉬운 독해 몇 문제를 풀 수 있어.

쌤, 그런데 1번과 2번 사이와 같은 경우는 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들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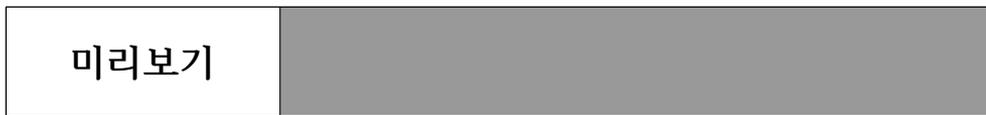
아냐. 우리가 K·W를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I.유추하기에서 논리력을 키워놓았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온 학생들은 듣기가 끝나는 동시에 답을 체크할 수 있어.

그럼 이번에는 ③의 시간을 알아볼까? 이 시간은 우리가 III. 미리알기 단원에서 배운 유형들과 관련이 있어. 3번에 해당하는 말의 목적, 4번에 해당하는 의견은 정답의 위치가 앞부분에 있어. 따라서 정답을 찾은 직후에는 미리보기를 하면 돼.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3번은 55초, 4번은 45초의 시간이 남아. 이 뿐만 아니라 그림일치, 내용일치, 언급유무, 표 등의 유형들 중에서도 답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분이 넘어.

마지막으로 ④의 시간을 알아보자. 스크립트를 한번 들려준 이후부터 두 번째 들려주고 16번 문제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해봤어. 마찬가지로 2016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1분 20초정도가 돼.

이제 ①~④의 시간을 모두 더해볼까? 40초+4분+2분+1분 20초 = 8분 이 시간이 8분이나 된다는 걸 알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시간에 대해 분석해서 듣기법을 생각해 본 선생님들은 얼마나 있을까?

이 8분이라는 시간동안 1~3번 → 13~15번 → 9~11번 → 16~17번 의 순서로 미리보기를 하면 돼. 너희들이 숙달하면 할수록 미리보기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야.



전체 잉여시간 (약 8분)

위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당연히 독해를 푸는데 써야지!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풀 때는 듣기와 독해를 넘나들어야하기 때문에, 문맥이 필요한 문제를 푸는 것은 좋지 않아.

문맥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는 내용일치, 어법(경우에 따라 필요함), 도표, 장문(두 번째)이 있어.

내용일치는 총 3문제야. 이 문제는 듣기를 풀면서 무조건 다 풀어야 해. 선택지를 ⑤번부터 보는게 좋아.

어법문제는 굳이 정답을 낼 필요는 없어. 애매한 것을 붙잡고 있느라 시간낭비 하지말고 확실히 아닌 것만 골라내도 돼.

도표도 마찬가지로 5번부터 보면 돼.

자, 위에서 장문에 문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고개를 가우뚱 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내가 장문을 포함시킨 이유는 장문에도 내용일치가 있기 때문이야.

장문에서 내용일치를 풀 때는 꼭 선택지를 미리 봐야 해.

다 읽고나서 선택지를 보면 그 내용을 찾으러 다시 본문으로 가야하니깐.

장문을 포함시킨 또 하나의 이유는, 문제수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서 시간을 보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장문은 하나의 유형이면서 3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그래서, 장문을 미리 풀어 놓는 거야.

혹, 듣기를 하면서 장문을 푸는데 듣기가 끝나버렸다면 그냥 장문을 먼저 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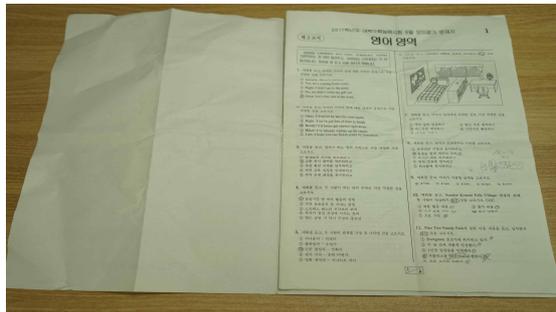
앞으로 가서 18번부터 풀면 돼. (아니면 평소에 푸는 순서대로)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거야.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으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읽어 나가면 돼.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게 이해가 잘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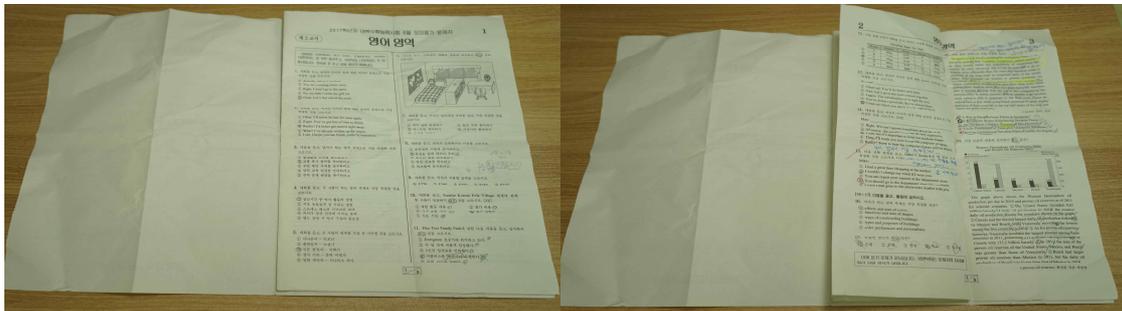
❶ 시험지를 받으면 반을 접었다 펴.



❷ 표지를 넘기라는 방송이 나오면 표지를 넘긴 후 1~3번 미리보기를 해.



속달된 학생들은 1~3번을 끝내고, 아래와 같이 표지 뒷면과 1페이지가 펼쳐진 상태에서 1페이지를 반으로 접은 후, 13번부터 미리보기를 하면 돼.



③ 미리보기를 하는 데 3번 문제가 나오면 다시 시험지를 편 후 3번을 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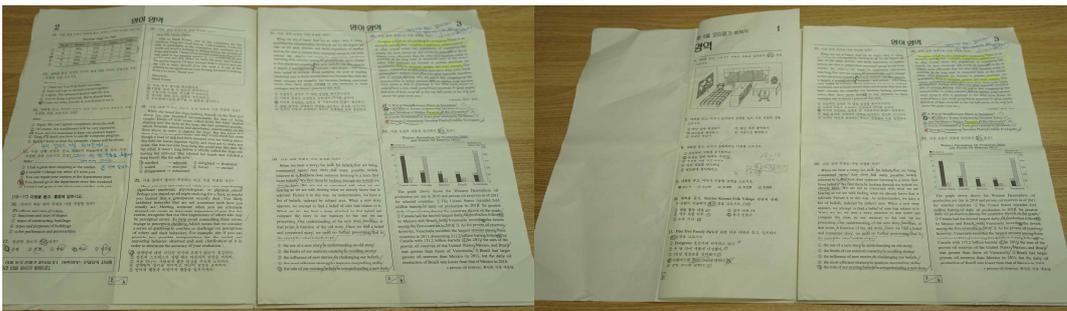


앞에서 배웠듯이 3번의 목적문제는 앞부분에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3번의 정답을 체크한 후에는 또 1페이지를 접어서 미리보기를 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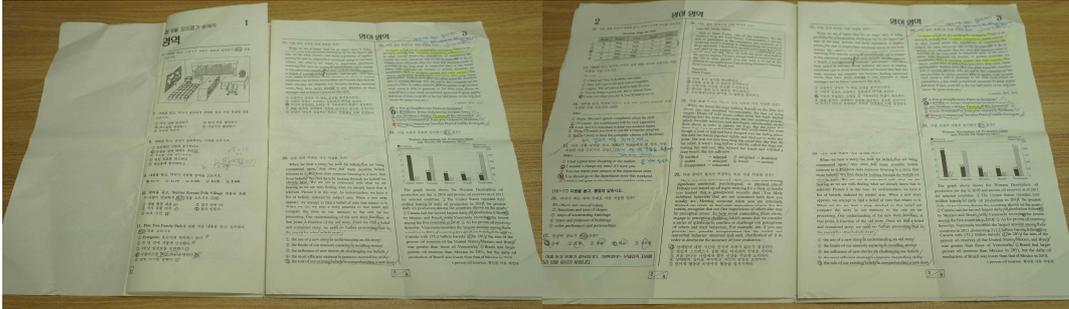
④ 이렇게 15번까지 미리보기를 끝내면 앞장으로 돌아와서 4번부터 풀어.

문제를 푸는 데 확실한 답이 나와서 더 들을 필요가 없을 때와 문제와 문제사이의 시간을 활용해서 9, 10, 11번을 차례대로 미리보기하면 돼. 이때는 아래와 같이 시험지를 접도록 해.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다 나오도록 펼친 상태에서 2페이지를 반으로 접으면 돼. 이렇게 접어야

⑤를 하기 쉬워.



⑤ 9~11번 미리보기 또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앞장의 문제를 푸는 동안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접힌 부분을 팔랑거리면서 16, 17번을 미리보기를 하면 되겠지?



⑥ 이 과정을 듣기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반복해서 숙달시키도록 해. 우리가 총 봐야할 선택지는 9번 계산문제를 빼고 총 10문제, 50개야. 후하게 한 선택지당 2초가 걸린다고 생각해도 100초, 1분 40초 밖에 안 걸려.

혹여나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와서 20초 정도 더 소요됐다고 해도 2분이야. 그렇다면 우리 전체 잉여시간인 8분에서 2분을 뺀 6분만큼을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애개? 고작 6분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독해를 제대로 배운 학생이라면 6분이라는 시간은 쉬운 독해 문제를 6문제 이상 풀 수 있는 시간이야. 다음에 독해에 대해 글을 쓸 기회가 있으면 쓰도록 할게. 그리고! 적다고 생각해도 6분이 어디야. 안 그래? 듣기 시간에 듣기만 해도 틀리던 학생이 듣기를 다 맞히면서 6분의 시간이 남는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야.

모두들 싸이팅!